

기후변화 시대,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건의안

의안 번호	4626
----------	------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 의 자 : 함미정 의원

찬 성 자 : 강정수, 설재영, 신진미, 최혜연,
김태민, 오세길, 송용석, 정홍근,
정인화, 이원배, 김동성, 박용준,
김명현, 최병순, 김세원, 양유환
(16인)

1. 주 문

대전 지역 중앙분리대(무단횡단 금지시설)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전도·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급자재 선정 시 내화학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대전 도심에서 2021년, 2023년, 2024년, 2026년 여름철 중앙분리대가 무너진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도된 바 있음. 특히 올해 여름, 폭염으로 대전 서구청 앞과 갑천변 도로 등지에서 중앙분리대가 녹아내려 철거되는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제안함.

3. 수신처: 국토교통부장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4. 건의안: 별첨

기후변화 시대,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전 의 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후변화 시대,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전의안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 속에서 대전 도심 도로의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금지시설)가 무너져 내렸다. 서구청 앞과 갑천변 도로 등지에 설치된 중앙분리대가 폭염으로 인해 변형·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2021년, 2023년 그리고 2024년과 올해까지, 대전 에서 동일한 현상이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분리대는 차량의 주행 차로를 분리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하며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가운데 충격 흡수를 위해 중앙분리대의 하단부에는 일반적으로 폴리우레탄 소재가 사용된다.

그러나 이 폴리우레탄은 열에 취약한 특성을 보여 폭염 시, 중앙 분리대 하단부가 녹아내리는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는 중앙분리대 전도 현상의 원인으로 겨울철 도로에 뿌려진 염화칼슘 등 제설제로 인해 분리대 하부가 먼저 약해지고, 이 상태에서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며 노후 중앙분리대가 잇따라 무너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무단횡단 금지시설 관련 품질기준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인장강도, 신장률, 인열강도, 경도 등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염화칼슘 등 화학약품에 대한 내화학적성을 검토하는 품질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해 중앙분리대가 적정한 내구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손상이나 파손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신속히 보수·교체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시행했어야 한다. 무너진 중앙분리대는 그 자체로 도로 위의 장애물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이다.

차로를 침범한 잔해는 주행 중인 차량과의 충돌은 물론, 이를 피하기 위한 급 차선 변경이나 급제동으로 인해 2차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 관리는 단순한 시설물 유지 차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관리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이 되어가는 지금,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중앙분리대 붕괴는 단순한 자연재해나 일시적인 시설물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경고이자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서구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그리고 서구청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도로시설물의 관급자재 선정 시 염화칼슘 등 제설용 화학약품에 대한 내화학적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자재의 내구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의 내구연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손상 시설물에 대한 적기 보수 및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6. 9.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